

<글로벌이슈브리프>는 주요 이슈에 대한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프

NO. 10

GLOBAL ISSUE
BRIEF 2021

가짜뉴스

THINK TANK VIEW

브루킹스연구소 | Brookings 2021. 2

Disinformation is Evolving to Move Under the Radar
은밀하게 진화하는 가짜뉴스와 해결 방안

세계경제포럼 | World Economic Forum 2021. 9.

MIT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New Way of Tackling Misinformation
MIT 연구진, 가짜뉴스 판별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브뤼겔연구소 | Bruegel 2021. 8.

The Great Infodemic: Time to Consider a Fake News Tax
정보의 홍수 : 가짜뉴스에 과세하면 문제 해결 가능



1. 브루킹스연구소 | Brookings

은밀하게 진화하는 가짜뉴스와 해결 방안

Alexandre Alaphilippe

2021. 2.

 Disinformation is
Evolving to Move Under
the Radar

66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의학 관련 가짜뉴스도 함께 확산
퇴치 방법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는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해짐
SNS 플랫폼에 책임 묻고 시민단체에 SNS의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해야

99

| 점점 교묘해지는 가짜뉴스의 특징 |

- ① 온라인 광고나 악의적 댓글부대 등 기존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음
- ②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고가를 활용하거나 비주류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
- ③ 목표한 타깃층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 세탁'
- ④ 은밀하게 활동해 찾아내기 어려움

| 해결 방안 |

- ▲ 트위터 봇이나 악의적 댓글부대 등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희생양의 이면을 주시해야 함
- ▲ 가짜 계정의 수 등 기존의 피해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함
- ▲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관하고 심지어 부추겨온 SNS 플랫폼에 책임 물어야 함
- ▲ 가짜뉴스를 조사하는 시민단체에 SNS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책임도 물을 수 없으므로 투명한 환경 조성 필요





2. 세계경제포럼 | World Economic Forum

MIT 연구진, 가짜뉴스 판별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Peter Dizikes

2021. 9.

 [MIT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New Way of Tackling Misinformation](#)

* 가짜뉴스 해결 방안 다룬 MIT 연구 결과 소개

66

집단지성을 이용하면 팩트체킹만큼 효과가 있고 비용은 적게 들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집단지성의 가능성 보여줘 집단지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수단 강구해야

99

| 문제 현황 |

- ①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NS 플랫폼과 언론은 팩트체커를 고용해 가짜뉴스를 가려내지만 넘쳐나는 정보를 모두 다루기에는 역부족
- ② 팩트체킹은 효과가 크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단점 존재

| 연구 결과 |

-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소규모의 일반인들을 이용해 뉴스의 헤드라인과 주요 문장을 평가하도록 실험
- ▲ 연구 결과, 집단지성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팩트체커를 고용한 것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 ▲ 집단지성을 이용한 팩트체킹은 확장성이 있어서 다른 분야로도 확대 적용 가능





3. 브뤼겔연구소 | Bruegel

정보의 홍수 : 가짜뉴스에 과세하면 문제 해결 가능
Georgios Petropoulos
2021. 8.

 [The Great Infodemic :
Time to Consider a Fake
News Tax](#)



66

팬데믹으로 과도한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 홍수’가
발생하는 가운데 가짜뉴스도 함께 증가!
가짜뉴스에 붙는 광고에 과세하면
가짜뉴스 생산 및 배포 동기 감소해 근본적 문제 해결 가능

99

| 가짜뉴스로 인한 위험성 |

- ①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및 전파 위험성 증가
- ② 가짜뉴스 확산으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 주저
- ③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표현하는 콘텐츠를 볼 가능성이 높아 가짜뉴스를 생산할 동기가 더욱 강해짐

| 해결 방안 |

- ▲ SNS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가짜뉴스에 기반한 콘텐츠의 수익화 방법을 이해해야
- ▲ 혐오 발언이나 극단적 발언 등과 구별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 가짜뉴스를 생산·전파하는데 주어지는 금전적 보상을 억제하면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면서 인명 보호
- ▲ 디지털 광고에 과세하여 가짜뉴스의 수익을 제한하면 근본적 문제 해결 가능

| 광고에 과세하는 방안의 이점 |

- ① 가짜뉴스를 생산·배포하는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낮아져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소지 없어
- ②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 선별 용이
- ③ SNS 플랫폼이 가짜뉴스로 얻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어 이해 상충 문제 해결

| 주의할 점 |

- ① 가짜뉴스 크리에이터를 식별하는 일은 외부에 맡겨 독립성 확보
- ② 외부전문가들은 SNS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SNS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